

6

2004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에스라 · 디모데후서 · 느헤미야  
디도서 · 에스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에스라 · 디모데후서 · 느헤미야  
디도서 · 에스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 학 신



마음속 깊은 염려 있어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주님 날 깨워 이르시네  
네 염려 내게 모두 맡겨라(벧전 5:7)

간절한 소망 더디 이루어져 마음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주님 내 귀에 속삭이시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시 37:4)

아, 고마워라 때마다 일마다 주님 주신 위로와 격려로 걸어온 세월  
힘약한 세월 살아왔으나(창 47:9) 친구처럼 대해주신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 험산준령 내 앞에 있다 한들 나 두렵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돕는 자로 내 곁에 늘 계심이라(히 13:6)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초여름의 문턱에서 종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께 사랑과 평강의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 느헤미야 서론

오늘날처럼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세대로 일찍이 없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관심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느헤미야이다. 성경에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유독 느헤미야가 각광을 받는 것은 그는 실수가 거의 없는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조직력, 추진력, 업적 등은 모두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기독교 리더십의 모본으로 놓고 그에게서 배우려 한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순히 리더십의 모범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모범이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보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위한 느헤미야의 헌신적 삶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심정, 어떤 태도로 헌신해야 할 것인지 그 원리와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인물 공부는 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인물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거나 방향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다윗처럼 되리라 결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런 결심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바로 이것이 인물 공부의 한계점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는 한, 탁월한 인물에 대한 동경과 우리의 결심은 아무런 효과도 우리 안에 남지 못하는 것이다. 실로 우리를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뿐이다. 그러므로 인물을 공부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결심과 다짐으로만 마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제시해 주신 그 인물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고, 우리의 부족과 결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여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며 전부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로 적들의 침략을 수시로 당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의 가장 신임 받는 신하로 출세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여 결국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비참함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큰 기쁨의 성읍으로 변케 한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해 주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비참함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끌어주셨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만 열면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내용분해

### 1.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1장-7장)

#### 1) 느헤미야 인도 하의 3차 귀환

(1장-2장 10절)

#### 2) 성벽 재건 착수(2장 11절-3장 32절)

#### 3) 재건 방해 공작(4장-6장 14절)

#### 4) 성벽 완성 및 체제 정비(6장 15절-7장)

### 2. 영적 개혁과 부흥(8장-13장)

#### 1) 율법의 해석(8장)

#### 2) 회개 및 언약 갱신(9장-10장)

#### 3) 백성들의 재정착(11장-12장 26절)

#### 4) 성벽의 봉헌식(12장)

#### 5) 계속되는 개혁(13장)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함께 올라온 족장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우선 레위 자손이 있는지 찾아봅니다(15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레위 자손들은 없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사람들을 데려 오라고 명령합니다(17절). 족장들은 에스라의 명령을 즉각 순종하여 레위 자손들을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헌신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하여 살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 합니다(21절). 그들의 귀환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21절). 물론 에스라의 손에는 왕의 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벨론 왕보다도 모든 인생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22절).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왕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과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8장). 그러나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하고 맙니다(1-2절). 이에 에스라는 회개함과 겸비함의 표시로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3-5절). 그리고 그들 열조들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영적 각성은 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매 맞음을 보면서 우리 죄악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며 철저했습니다(6-15절). 그렇습니다. 회개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행 3:19).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마다, 참으로 마음을 찢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인지요?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외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17). 오늘 하루도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인해 크게 회개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들과 그 소생들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3절).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3a)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었습니다(2절).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머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보는 데 있어서 금식이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사랑하던 이방인 아내와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내어보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고 몇 마디 말로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단호히 버리고 의에 순종하는 것(히 12:4)!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죄에 대하여 단호한 신앙을 소유케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생명의 약속' 대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1절). 또한 자신의 동역자이자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일컬어서는 '사랑하는 아들' (2절)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던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디모데에게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7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엄숙하게 권합니다(8절). 혹시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복음의 길을 건다가 용기를 잃고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이니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과 같이 힘차게 복음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또한 바울은 성도의 일차적인 의무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11절). 또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뢰함을 배우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게 됨을 말해 줍니다(12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이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13,14절). 이렇듯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에 대하여 취해야 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강해져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힘입게 될 때, 신자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명합니다(3절). 그런 다음에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6절).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변함없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고난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8절).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9절).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받을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11절).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그 영광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진리 안에서 거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바른 진리 안에서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1절). 바울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열 아홉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현실과 물질 중심적이며, 쾌락을 사랑하고 권위에 도전적이며, 자기가 누리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배반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2-4절).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면서 신자는 거룩한 영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5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살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불릴 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보다 지금이 더 마지막 때요, 그 때보다 지금이 더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가르침과 속임수가 우리 자신을 흔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변덕이 많고 잘 흔들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불드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바른 진리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주님 앞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엄숙하게 말합니다(1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2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따르며 허탄한 이야기 듣는 것을 즐거하기 때문입니다(3,4절).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혼자입니다. 데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으며,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역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복음의 온전한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느헤미야가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비통한 가운데 포로 귀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술 관원은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신하만이 오를 수 있는 직위였습니다. 한 마디로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던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는 축복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에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에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예루살렘의 소식은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여 성이 부서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1-3절). 이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4-5절). 그런 다음에는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자복합니다(6-7절).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많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11절).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간절함으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도록 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써 많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있음을 알고 그 원인을 묻습니다. 당시에 왕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역을 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게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고통을 말합니다(3절). 그 결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호의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7-8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8절).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선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너진 성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을 신중하게 준비하며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성들에게 성을 재건하자고 제안하며 격려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말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17-18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시작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자신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느헤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힘을 얻어 각각 자기의 힘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서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힘을 당해 성벽과 문을 건축합니다. 이어서 제사장들, 금장색들(금을 취급하는 사람들), 향품 장사들, 고위관리들, 여인들이 모두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성벽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마땅히 교회를 섬기고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서도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고아 사람들 중 귀족들이었습니다(5절). 이들은 권력과 재력이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성벽 재건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산발랏과 같은 편에 서서 성벽 재건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행하는 일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에 헌신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적들의 훼방을 만나는 장면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인 호론 사람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 심히 분을 냅니다(1절).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갑작스런 출현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성을 재건함으로써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어떻게 해서든 성벽 재건 역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산발랏이 제일 먼저 사용한 작전은 '비웃음'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 없으며 얼마 못갈 것이라고 비웃습니다(2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3절)라고 조롱합니다.

조롱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간다"라고 협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낙심합니다(10절). 이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합니다(14절). 이에 유다 백성은 용기를 내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비웃음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온갖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에 굳게 서서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던 백성들 속에 원망과 부르짖음이 생겼습니다. 가뭄과 식량난, 과중한 세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 등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그동안 크게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1-5절). 나라의 유지들과 관리들은 백성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강요하는 등 악한 일들을 자행하였고, 가난한 백성들은 자식을 종으로 팔아 빚을 갚아나가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나라의 유지와 관리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동족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8절b). 유지와 관원들을 꾸짖음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유지와 관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은 유지들과 관리들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자기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고칩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이미 받은 이자를 돌려주며, 저당잡은 기업들을 돌려주기로 합니다(10-12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행하였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찢림을 받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땅히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진리를 순수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달게 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산발랏**은 성벽재건을 멈추게 하기 위해 끈질기게 시험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정상회담을 핑계로 만나라고 요구합니다. 느헤미야가 거절을 해도 네 번이나 연거푸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가 모반하기 위해 성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모함합니다(6-7절).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없는 일이었고 지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맞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중에는 유다의 선지자 스마야까지 산발랏의 사주를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느헤미야 너를 죽일 것이니 성전 외소에 숨어 목숨을 건지도록 하라”(10절 참고). 느헤미야는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분별해 내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전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차히 연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11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전, 건강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모은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성벽이 완공된 후 새로운 전진을 위해 인구조사와 계보정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되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문을 잘 관리할 것을 명령하고, 모든 예루살렘 거민에게도 각각 자기의 집 맞은편을 파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적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 늘 깨어서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때가 가장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마귀의 공격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의 인구를 계보대로 철저하게 조사합니다(5절). 이때 조사된 사람들은 주로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등 620명이었고, 제사장 중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바르실래 자손은 계보 중에서 그 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는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면 언제나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살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얼굴과 성격과 배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임을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회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적 대각성 집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 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간 정치적, 행정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백성들의 심령은 오랜 포로생활로 인하여 매우 상하고 곤고하였으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 곧, 성벽재건 공사를 마친 후 칠 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거국적인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열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불순종했던 지난 죄를 깨닫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회중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12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 분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곧 회복과 부흥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회복과 부흥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요 14:27).

건고한 성벽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학사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을 시발점으로 하여 불붙기 시작한 종교 개혁은 거국적인 회개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후에 백성들은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철저히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맺어왔던 부정한 관계를 모두 청산하였습니다(2절). 백성들은 매일 3시간씩 각자의 처소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씩 죄를 회개했습니다(3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자신들을 살피며 회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본 장에는 민족적 회개운동 기간에 레위인들의 인도 하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으로, 천지창조로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선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6-15절). 둘째는,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 고백하면서 광야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생활까지의 사건을 서술하는 내용입니다(6-13절). 셋째는, 유다백성이 치한 현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32-38절).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서도 배반하고 범죄했음을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회개하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어주시는 풍성한 긍휼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루살렘** 성벽완공 이후에 고조되기 시작한 영적 부흥운동은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본 장에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인친 자들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침 받은 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제사장들(1-8절), 레위인들(9-13절)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14-27절)입니다. 이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언약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만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인을 친 것은 먼저 자신들이 술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준수하기로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스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딸은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시고 섬김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친히 걸어가셨던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절정입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기도 제목 /** ①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주민을 선정하고 재배치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미 완공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제1차 귀환자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토대로 유다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적절히 재배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일차적으로 사용한 인구 재배치의 방법은 다름 아닌 '제비뽑기' 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해 구약 시대에 흔히 사용된 방식이었습니다(민 26장). 성경에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 것은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잠 16:33). 그러나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롬 12:2).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체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닦아놓은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제비뽑기의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적국들의 공격 대상이었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며 예루살렘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눅 22:4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기도 제목 /** 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② 미움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제1차 귀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재배치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한 것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전 제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완공 감사 봉헌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그 봉헌식을 담당할 자를 확인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27절). 그리고 본 장에 이들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성전 제사제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유능하고 신실한 일꾼을 계속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단절되지 않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히 8:1).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은 주님에 의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시 112:6).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일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도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계 21:27).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언약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모습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언급되는 이방인 축출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중심한 것으로서, 이것은 신명기 23장 3-6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으로서(창 19:36-38),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신 2:9,19), 도리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했으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민 22-24장).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율법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그 금지명령에 따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총회에서 축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며(마 13:30)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들을 나누실 것입니다(마 25:32-33).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 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삶에서 불의하고 죄악된 요소를 용납해서는 안 됨을 교훈해 줍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을 총회에서 철저히 가려내야 했듯이, 성도들도 자칫 간과하기 쉬운 죄악의 요소를 빠짐없이 분별하는 지혜와 단호히 제거하는 용기를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갈 5:24).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히 12:4).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죄에 대한 분별력과 단호히 제거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레데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 준수하는 행함도 반드시 있어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10절).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만 얻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엡 2:8).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은 신학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며 경건한 척 하였으나 실상은 탐욕에 눈이 멀어 온갖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11,12,16절). 이러한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인 디도에게 명하여 복음에 합당한 교회 지도자를 세울 것과(5-9절),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고 경계할 것(13-16절)을 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며, 그 열매를 보고 그 정체를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 7:15-23). 우리 믿는 자들은 이단의 속성을 분명히 깨달아 저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능히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양심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신앙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0절까지는 교회 안의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5절에서는 성도의 신앙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성도는 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롬 3:23,24)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지닌 자들로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야 합니다(14절).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둘째, 성도의 성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연령과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성화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14절).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또한 우리를 죄의 부패한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어 거룩한 삶과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룩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사람입니다(10절).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딤후 2장)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각 계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양육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본 장에서는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 장을 요약하면, 먼저 시민 된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1절), 모든 불신자들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2-8절), 이단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한 태도(9-11절),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12-15절) 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 양심과 정결한 삶을 견지해 가야 하는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 된 자로서의 의무에 성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입니다(마 28:18-20). 그러므로 성도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마 5:13-16), 아직도 죄악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선한 시민으로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슨 일에 제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인 에스더는 제1차, 제2차 포로 귀환 사이(B.C. 537-458년)에 바사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유다 민족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장은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 당시 근동을 위시하여 북아프리카 지역의 맹주였던 통치자 아하수어로(일명 크세르크세스 1세, B.C. 485-464년)가 베푼 대연회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1-8절). 아하수어로 왕은 미모가 출중했던 왕후 와스디를 귀빈들 앞에 등장시켜 자신의 영예를 드높이려 했으나 왕후 와스디는 이를 거절합니다(9-12절). 사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와스디의 행동은 오만불손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아하수어로의 노를 산 왕후는 폐위되고 맙니다(13-22절). 나중에 보게 될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에스더를 바사의 왕후로 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사 제국의 영화와 자신의 권세를 널리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의 대대적인 만찬을 배설했던 아하수어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패한 허영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행여 우리 마음 한 구석에도 이런 망령되고 부패한 허영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허영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하나님만을 늘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훗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간택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 왕후를 폐위시킨 지난 날의 결정을 후회하자 폐위에 적극 동조했던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 선택을 간하게 됩니다(1-4절). 이렇게 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아리따운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됩니다(5-8절). 한편 에스더의 일로 바사 왕국에서 벼슬을 하게 된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간파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19-23절). 실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의 뒷전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지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포로의 딸 에스더가 당시 중근동 일대의 최강대국인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 가냘픈 한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죄인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의 거친 십자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자신의** 높은 지위에 도취한 하만은 유독 모르드개만이 자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을 빌미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일 결심을 합니다(1-6절). 하만은 자신의 악한 저의를 숨긴 채 아하수에로에게 유다 민족을 말살할 법령을 승인받습니다(7-15절). 이러한 하만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악한 법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는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여기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악한 세상과는 원수로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인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은 곧 신앙의 절개를 굽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그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 지조와 절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지위가 아까워 신앙적인 절개를 쉽게 내팽개치는 일은 없습니까?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적 절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영원한 것을 부여잡게 하옵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장에는 모르드개를 위시한 모든 유다인들이 슬퍼한 사실(1-3절), 민족적 위기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교신(4-17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로 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16절)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신앙으로 대처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매일 매일 평범한 시련과 핍박도 있지만,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신앙의 순결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심각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여' 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최후 승리가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이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줄 것을 요청합니다(1-8절). 하만은 왕비의 특별 연회에 신하 가운데서는 자신만 초대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연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모르드개를 처형시키려고 꾀를 짜내게 됩니다(9-14절). 자신의 죽음의 날(7:10)이 가까워온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악한 계획에 들떠 있는 하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기뻐하며 자신들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기고만장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멸망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며, 한 순간에 홀연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도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면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이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하고 참된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땅한 대로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바치고 복음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사람과 세상을 믿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모르드개의 숨은 공적이 절묘하게 밝혀지면서 모르드개가 큰 영예를 얻게 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불면의 고통 중에 있던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날 밤 궁중 일기를 들추다가 모르드개의 공적을 뒤늦게 발견합니다(1-3절).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만은 어리석게도 모르드개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을 크게 높일 방책을 만들어 내어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4-14절). 그러나 왕은 오히려 모르드개를 높이고 하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명령합니다. 즉, 모르드개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에 태운 뒤, 하만이 그 말을 끌고 앞장 서서 걸으며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유쾌한 반전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연구할 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일의 결말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잠 16:9).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하만처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일을 다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르드개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를 해할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잔치 석상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어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1-6절),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장면(7-8절), 마침내 하만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9-10절)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며, 공의와 진리로써 이 세상을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만의 계교가 수포로 돌아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악인의 계교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다만 비참할 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함은 물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파멸을 확신하며, 의인의 승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최후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악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에 폭 빠져 살다가 줄지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참되고 영원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있을 뿐 곧 사라질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 구역예배공과

## 구역예배순서

|      |       |     |
|------|-------|-----|
| 찬 송  | ..... | 다같이 |
| 구역공과 | ..... | 인도자 |
| 기 도  | ..... | 인도자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 . . . .

교회의 사역

● 찬송/ 259장(빛의 사자들이여) ● 본문/ 누가복음 15:3-7

- <sup>3</sup>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sup>4</sup>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sup>5</sup>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sup>6</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 머물면서

### 1. 본문 관찰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1-3절 :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②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2) 4절 :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 )마리를 잃어버렸다.

3) 4절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목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흔 아홉 마리를 ( )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 ) 찾아다녔다.

보기> 집, 들, 네 시간 동안, 찾을 때까지

4) 5-6절: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떤 심정과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습니까? 해당하는 것들에 동그라미를 그리십시오.

너무 피곤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 )

즐거웠다. ( ) 양을 어깨에 메었다. ( )

친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다. ( )

- 5) 7절: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                     |                              |
|---------------------|------------------------------|
| 길을 잃은 양 ·           | · 죄인들의 구원을 다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
| 양을 찾아 나선 목자 ·       | ·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
| 양을 찾고 크게 즐거워하는 목자 · | ·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헤매는 우리들      |

##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교회의 사역」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교회의 사역에 꼭 필요한 것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교회의 사역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것들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십시오.

- 답)** ① 하나님의 치유 능력 ( )  
 ②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 )  
 ③ 화려한 건물과 많은 재산 ( )  
 ④ 많은 사랑과 철저한 훈련 ( )  
 ⑤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온전한 헌신 ( )



2)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의 단락을 읽고...

**질문)**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어떤 나쁜 결과가 있게 됩니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넣으십시오.

**답)** 게을리 ☐☐ 스럽지 못한 교회가 된다.

☐☐ 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 하게 된다.

☐☐ 없는 교회가 된다.

어려움 앞에서 신앙의 ☐☐ 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된다.

보기) 사단, 충성, 믿음, 파괴, 목표

3) '목자의 심정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다 헤매며 찾아다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답)** (        )

① 양 치는 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② 양을 잃어버리면 재산 상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③ 자신의 생명보다 어린 양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4) '목자의 심정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가?'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

① 그것이 교회의 정책이요 방향이기 때문이다.

② 그것을 해야 우리의 양심이 편하기 때문이다.

③ 그것을 해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기 때문이다.

④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5) '수고 뒤에는 큰 기쁨이 있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답)

- 시작 ·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해야 한다.  
과정 · 신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꾸준히 돌봐준다(행 20:31).  
마지막 ·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잘 돌봐준다.

6) '수고 뒤에는 큰 기쁨이 있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교회의 사역과 관련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 말씀을 체험해 본 여러분의 경험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충현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와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늘의 기쁨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저는 ‘하나님의 일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사 62:1)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 기도

1. 감사 /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히 알게 하시고, 저희 개인의 목숨과 생활보다 교회의 사역을 소중히 여겨 온전히 헌신케 하옵소서. 충현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며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 수화, 손바닥, 손가락

## 제 2 과 ●●●●●●●●

### 다윗의 자손, 예수

♣ 찬송/ 409장(목마른 내 영혼) ♣ 본문/ 마가복음 10:46-52

<sup>46</sup> 저희가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 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sup>47</sup>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sup>48</sup>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sup>49</sup>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sup>50</sup> 소경이 겹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sup>51</sup>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sup>52</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

가족 사항: 디매오의 아들

가족 사항: 디매오의 아들

[illegible]직업:  

“□□의 자손 예수여, 나를 □□□ 여기소서”

보기) 다투어 요한 불쌍히 귀하게

응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사람들의 반응 · 바디매오를 부르셨다.

예수님의 반응 . . .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하였다.

4) 50-51절 :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디매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눈을 떠서    원한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렸다. (13)

“가라 네   이 너를   하였느니라”

##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의 단락을 읽고...

**질문)**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보고, 해당되는 것을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기록하십시오.

**답)**

믿음을 갖게 된 배경 ( )

예수님의 소식을 대하는 바디매오의 태도 ( )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디매오에게 생긴 변화 ( , )

보기)

- 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②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③ 믿음이 계속 자랐다. ④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다.

### 2)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의 큰 차이'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됩니까? 아래 빈칸을 보기에서 찾아 채우십시오.

**답)**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바디매오를 .

보기) 고함쳤다, 탄식했다 / 꾸짖었다, 칭찬했다

3)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의 큰 차이'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있던 바디매오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자기 앞에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영접하였다.

4)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얻은 두 가지 복은 무엇입니까?

**답)**

5) '기회를 놓치지 말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 예수님을  수 있는 기회  
반드시 해야 할 일 - '나를  여겨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일

6)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오늘 설교를 읽고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나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결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은 도움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도움과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일도, 5분 뒤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1. 감사 /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비참함 속에 살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바디매오처럼 저희도 날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충현교회 단기선교팀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디매오처럼 예수님을 진실하게 찾고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마 :



# 한글 맞춤법

81-21.4 한글 맞춤법 제정령 (제81호) (1948. 12. 21. 공포)

한글 맞춤법은 한글의 쓰임에 관하여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한글의 구성은 한글자, 한글어, 한글문, 한글문장이다.  
 2. 한글자는 한글자의 구성요소를 한글자, 한글어, 한글문, 한글문장이다.  
 3. 한글어는 한글어의 구성요소를 한글어, 한글문, 한글문장이다.  
 4. 한글문은 한글문의 구성요소를 한글문, 한글문장이다.  
 5. 한글문장은 한글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글문장, 한글문장이다.  
 6. 한글문장은 한글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글문장, 한글문장이다.  
 7. 한글문장은 한글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글문장, 한글문장이다.  
 8. 한글문장은 한글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글문장, 한글문장이다.  
 9. 한글문장은 한글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글문장, 한글문장이다.  
 10. 한글문장은 한글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글문장, 한글문장이다.

### 제 3 과 ●●●●●●●●

## 예수님의 재림

● 찬송/ 168장(하나님의 나팔소리) ●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13-18

<sup>13</sup>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sup>14</sup>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sup>15</sup>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sup>16</sup>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sup>17</sup>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sup>18</sup>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 머물면서

### 1. 본문 관찰

살전 4:13-18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1) 13, 14절: 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까?

- ① '죽은 자'라는 표현이 웬지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다.
- ②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 ③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2) 16, 17절: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 · · 그 후에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진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 · · · 먼저 일어난다.

3) 13, 18절: 바울이 '자는 자들' 곧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하는 두 가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인해 ☐☐ 하는 일을 막으려고
- ② 신자들이 이 여러 말로 서로 ☐☐ 하게 하려고

보기) 위로, 슬퍼, 기뻐, 칭찬

4) 마 24:42-44 :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 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날과 때를 미리 알 수 있다.
- ②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날과 때를 계산해 낼 수 있다.
- ③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가 없다.

5) 마 24:42-44 :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할까요?

##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예수님의 재림」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놀라운 위로를 주는 예수님의 재림'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야고보서 5장 7-8절을 읽으면서 신자들은 어떤 위로를 받게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답)**

2) '놀라운 위로를 주는 예수님의 재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읽으면서 신자들은 어떤 위로를 받게 됩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답)**

3)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과 경고'의 단락을 읽고...

**질문)**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과 경고는 각각 무엇입니까?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답)**

- |           |                                |
|-----------|--------------------------------|
| 예수님의 약속 · | ·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재림을 대비하지 않으리라" |
|           | · "재림 전에 큰 환난이 있으리라"           |
| 예수님의 경고 · | ·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
|           | ·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

4) '깨어서 재림을 대비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노아를 예로 들어가면서 말해 보십시오(마 24:42-44 참고).

**답)**

**질문)** 아래의 신지들을 재림으로 위로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며 위로해야 할까요? 한 가지 경우만 골라서 생각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답)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신자 -

죄의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신자

질병이나 가난 등으로 힘들게 사는 신자 -

가족이나 친지가 죽어 슬퍼하는 신자 -

6) 「예수님의 재림」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특별히 위로  
를 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준비하게 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기도

1. 감사 / 오늘도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노아처럼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늘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충현교회의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大正新編大日本帝國史』

## 제 4과 ○●●●●○

#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 찬송/ 485장(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본문/ 마가복음 4:30-34

<sup>30</sup>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sup>31</sup>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sup>32</sup>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sup>33</sup>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sup>34</sup>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 머물면서

### 1. 본문 관찰

막 4:30-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33-34절 :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즐겨 사용하셨습니까?

① 그림

② 비유

- 2) 31-32절 : 이 두 구절의 내용을 볼 때 비유란 무엇일까요?

① 비유는 쉬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다.

② 비유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보는 것들을 사용하여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 3) 31절 :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 한 알

- 4) 32절 :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물보다 ☐☐☐ 큰 ☐☐ 를 내니 공중의 ☐ 들이 와서 그 그늘에 ☐☐☐ 만큼 된다.

보기> 작으며, 깃들일, 새, 가지, 열매, 커지며

##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예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각각 무엇일까요?

**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        ) 비유를 말씀하셨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        ) 비유를 말씀하셨다.

**보기)**

- ①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분석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 ②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려고
- ③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배우기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 ④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고 매력 있게 가르쳐 주시려고

### 2) '완악한 자들에게는 걸림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징검다리'의 단락을 읽고...

**질문)** 비유를 듣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답)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2)

...그들이 수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10)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 ·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

- 3) '완악한 자들에게는 걸림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징검다리'의 단락을 읽고...

**질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10)

가장 좋은 것들 - ( , , )

가장 나쁜 것들 - ( , , )

...그러므로... (10)

...그러므로... (1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 신앙적 교만

- 4) '쉽지만 위대한 능력이 있는 말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하지만, 거기에는 위대한   이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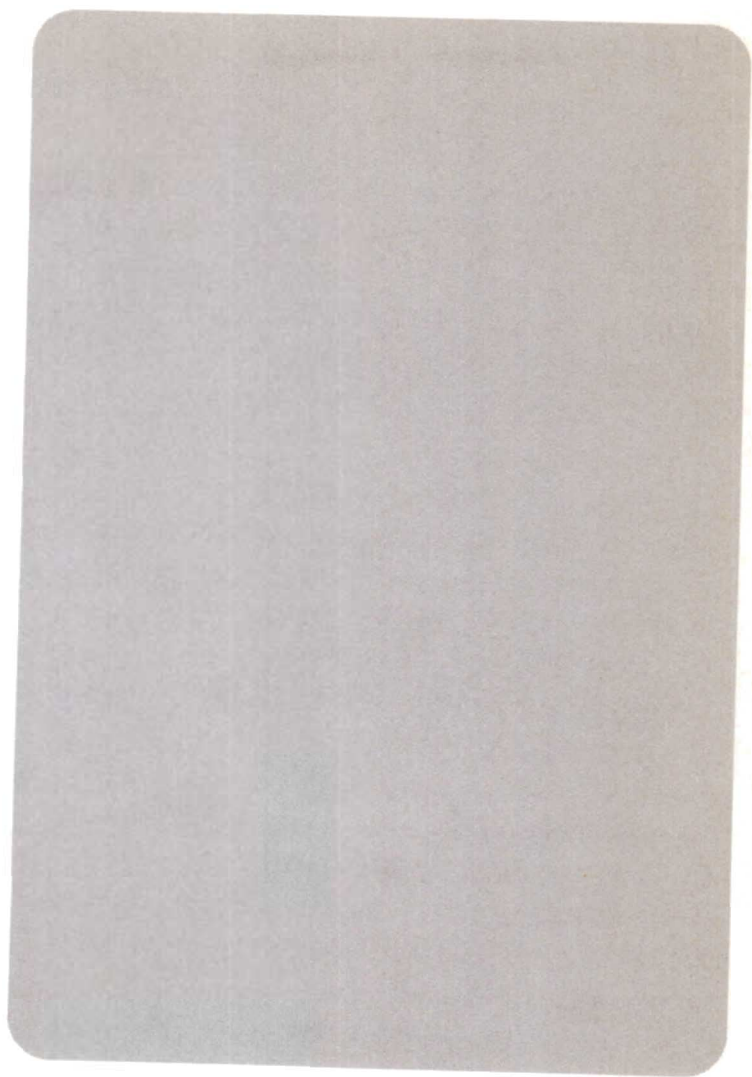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마 11:25-26).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풀 수 있는 복잡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라고 배우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 기도

1. 감사 /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깊이 배워가게 하옵소서. 충현교회의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 구역예배순서

|            |           |     |
|------------|-----------|-----|
| 찬 송 .....  | 다같이       |     |
| 구역공과 ..... | 제4과 ..... | 인도자 |
| 기 도 .....  | 인도자       |     |
| 주기도문 ..... | 다같이       |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sup>30</sup>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sup>31</sup>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sup>32</sup>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sup>33</sup>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sup>34</sup>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막 4:30-34)

###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예수님

비유란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영적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짧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어린아이들을 쉽게 가르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확실하고 매력 있게 가르쳐주시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알아들었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삼년 반의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은 과거에도 매우 중요했고, 물론 지금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사 6:9-10 참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방인들만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들과 신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완악한 자들에게는 걸림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징검다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하셨습니다(막 4:11 참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 눈 먼 사람, 또는 굶주린 사람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이 세상의 비밀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돈을 주고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조사한 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아들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겸손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무덤가에 살던 거라사 광인, 뿔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 작은 삭개오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준비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있다면, 말씀의 씨앗은 말라죽고 말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 근심이나 신앙적 교만이나 이기심 같은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일들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 **쉽지만 위대한 능력이 있는 말씀**

예수님의 비유는 생명과 사망과 부활에 관해서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미래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빛이 들어오는 교통 신호등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간섭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인간의 언어였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짧고 간단했지만 거기에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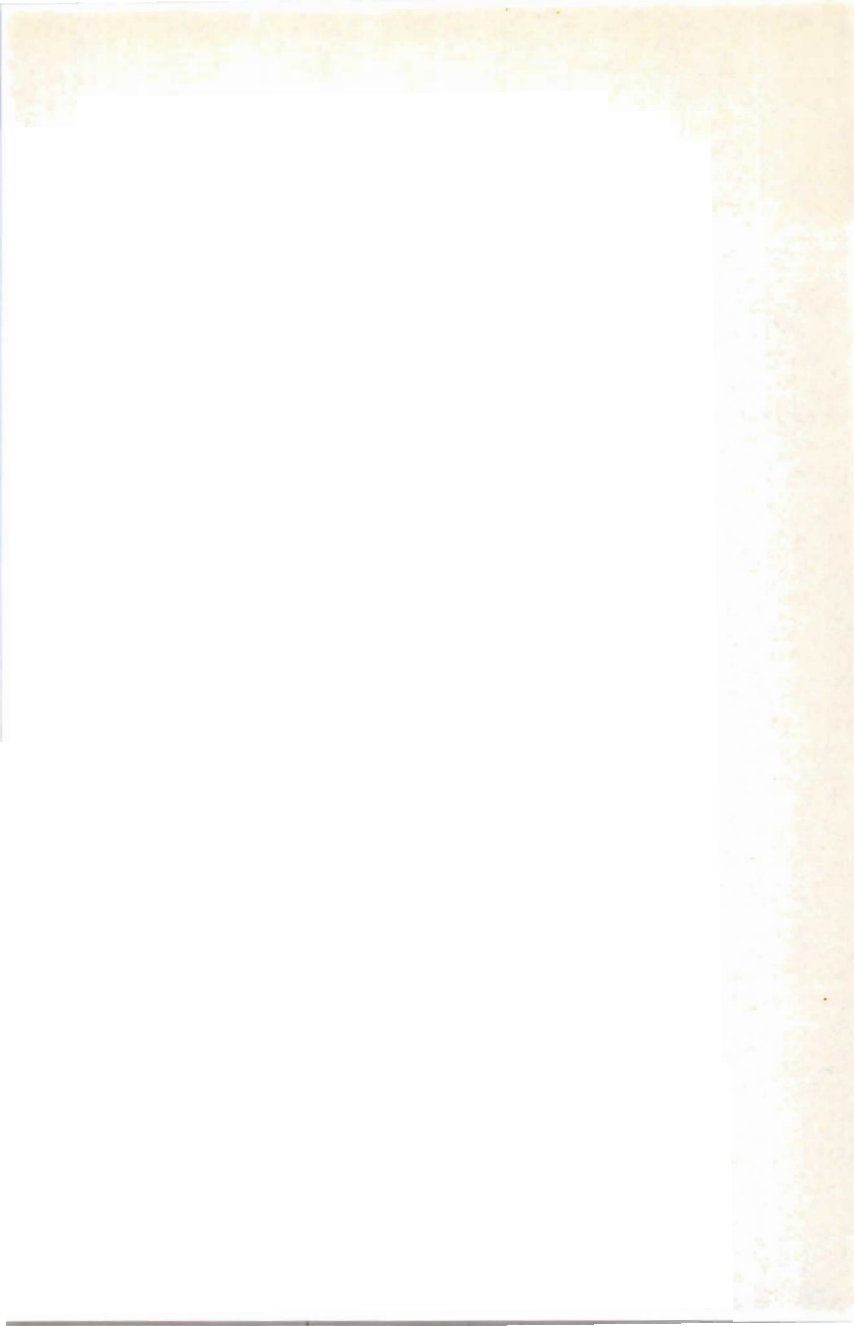
람들은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했습니다(엡 3:4-9 참고). 예수님은 시장의 언어를 가지고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단순하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모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이 초림 시에 완성되며 메시아의 영광이 재림 시에 완성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벧전 1:10-12 참고). 하늘의 천사들도 성령의 일하심을 자세히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 어린이처럼 들으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마 11:25-26).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풀 수 있는 복잡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라고 배우기를 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       |       |
|--------|-------|-------|
| 찬송     | ..... | 과 같이  |
| 성경봉독   | ..... | 사 회 자 |
| 메시지 낭독 | ..... |       |
| 기도     | ..... | 다 같이  |
| 주기도    | ..... | ..... |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원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요,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마나, 2004년 6월호 / 발행인 / 김형준 /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다 / 원진란(14일) / 김익환(8, 14일) / 양철덕(15, 22일)  
하중철(23-30일) 목사

구역예배공과 : 이택복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3-6211(자비매음)